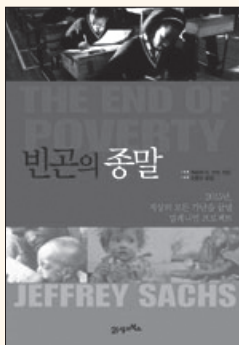


국제협력 관련 책 소개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류에 대한 사명감,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당위성,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주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적들이 존재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 될 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분야에 발을 딛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어찌보면 당장의 복잡한 현상에서 벗어나 국제협력과 국제개발이 어떤 취지로 시작된 것인지 그 시작으로 돌아가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선구자들의 고민과 해법, 그리고 비판들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오늘의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호 책 소개에서는 코이카에서 추천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8권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나의 경쟁시장이 되어버린 듯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한국과 서울의 전략을 포지셔닝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 멈추고 국제협력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송고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민과 우려 그리고 날이 혁신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곤의 종말 (2006)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첫 번째 책은 **빈곤의 종말(2006)**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오랫동안 구호 활동을 추진해온 제프리 삭스가 제안하는 빈곤종말 계획서입니다. 제프리 삭스는 빈곤 해결이 노예제도의 폐지, 식민주의의 종식, 인종주의의 민권운동과 반 아파테이트 운동 등과 같이 각 세대의 가난한 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워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 그리고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실제 상황-빈곤의 원인, 부국 정책의 역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곤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치체제의 한계나 부패, 민주주의의 부재,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며 지리적 고립성, 질병, 그리고 기후재난 등에 의한 요인이 더욱 크다고 진단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더 많은 원조 규모와 약속 이행,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체계 마련, 빈곤에 대한 편견 타파, 전세계적 협력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건과 경제적 구조 해결 이외에 큰 맥락에서 기초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집단적인 발전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잡혀있는 자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 이들이 스스로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자 부국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추천 글에서 록그룹 U2의 메인보컬 보노는 제프리 삭스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잘못된 무역과 악성 부채 그리고 복잡하게 뒤엉킨 불운한 실타래를 풀고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라 표현합니다. 제프리 삭스의 주장과 전략은 우리 시가 국제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유의 깊게 검토해야 할 기초 교과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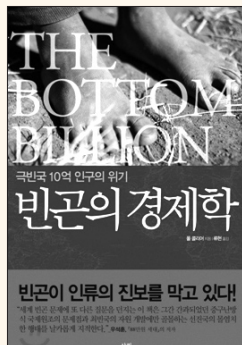


세계의 절반 구하기 (2011)

이러한 제프리 삭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절반 구하기(2011)**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리입니다. 윌리엄 이스털리는 제프리 삭스를 유토피아적 사고에 빠졌다는 이상주의자라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원조가 서구의 원조가 과거 수치스러웠던 식민주의적 오만의 재탕”이라 비판하고 계획가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거대 원조보다 해당 지역의 탐색가들의 활동

을 도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와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왜 실제로 필요한 이에게 도달하지 않는지 그 현실을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무기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빈곤층에게 ‘원조의 저주’를 내린 원조의 실패 사례들을 통해 국제원조가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시와 평가 체제를 강화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서의 후반부에서는 제국주의의 종말에 서구가 과거 식민지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고자 강제했던 인위적인 해결책들이 오늘날 갈등의 씨앗이 된 역사적 선례들에 상당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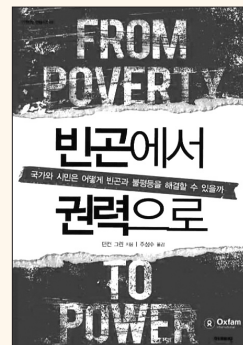
량을 할애하며 “서구의 조력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규칙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에 많은 부국과 국제금융기관 등이 원조, 국제 금융과 군사개입을 시행할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세계의 절반을 구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하면서 자생적 발전의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서구 원조방향에 대해서는 유토피아적 의제를 벗고, 점진적인 접근과 개혁을 추진하며, 정부보다 개인들이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하는 것에 주안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빈민들이 직접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 마련과 현재 원조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하여 강조면서 말이죠.



빈곤의 경제학 (2010)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이스털리는 서로 상대적인 입장이지만 최빈국 가난의 원인 중 하나를 서구 선진국의 탐욕으로 꼽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폴 콜리어는 ‘빈곤의 경제학(2010)’에서 최빈국은 자립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거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빈곤의 4가지 및 인 분쟁, 천연자원,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가 빈곤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런 밑바닥 국가들에게 필요한 해법은 선진국 8개국과 국제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계획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무역 특혜, 부패 방지법, 새로운 국제 현장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구의 군사개입도 때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의 관점은 기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콜리어 또한 오늘날의 원조기관에 대해서는 비판이 높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로 이러한 정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폴 콜리어의 빈곤의 경제학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프리 삭스의 논의에서 시작된 빈곤의 4가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폴 콜리어와는 반대로 던컨 그린은 ‘빈곤에서 권력으로 :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2010)’에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이 빈곤 해결의 제일 우선적인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빈곤을 없앨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가 발전해야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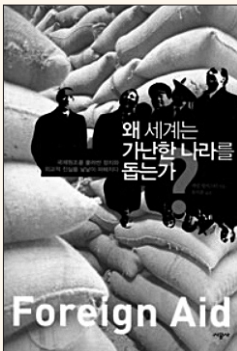


빈곤에서 권력으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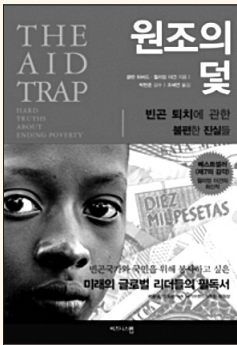
그는 “빈곤은 권력의 부재 상태이자 자기 삶의 주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이며 빈곤층은 권력, 발언권, 기회, 자산의 재분배 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글을 다소 생소한 단어의 조합이 많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빈곤’과 ‘권력’이라는 단어 조합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빈곤층이 권력을 획득해야만 빈곤을 타파할 수 있

다는 그의 주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이 권력 찾기 위한 9개 주춧돌로 시민의 권리, 신념, 교육, 지식, 조직, 소유, 투표, 반부패운동, 정치를 꼽으며 여기에서 정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원조에서 농촌분야의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은 평등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농촌발전에 힘을 쓴 도이모이 정책과 중심지 위주의 개발을 한 중국의 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자국민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일부 지역의 극빈곤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콜리어의 책을 “학술 이론, 현장의 경험, 정치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합된 책”이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하준 교수는 ‘사다리 걸치기(2004)’,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2010)’ 등의 저서에서 서구의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강요하는 경제 정책과 제도 등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여 선진국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의 경제 논리를 후진국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선진국들도 자국이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보호주의 정책을 썼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장하준씨의 글이 더욱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선진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아니라 같은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 장하준 교수 만큼이나 신랄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진국의 이기심을 들춰내는 또 다른 저자는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2010)’의 캐럴 랭커스터입니다. 그녀는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이며 국제원조를 담당하는 미정부기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 저서에서 주요 공여국의 원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원조 발전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였습니다. 외교와 개발이 목적인 미국, 외교와 영리를 중시하는 일본, 구식민지를 대상으로 영향력 행사에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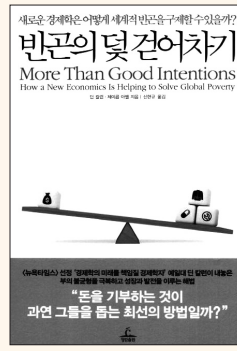
원조의 덫 (2010)

초점을 맞춘 프랑스, 원조 관련 비정부 기관들의 높은 영향력으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독일, 개발이 우선되지만 영리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던 덴마크까지 주요 공여국들은 모두 자국의 정치 외교적 실리와 개발의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기존에도 공여국의 사익과 이를 휩쓸리는 국제기구의 문제점과 해악은 여러번 지적되어 왔지만, 공여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들을 드러내고 규명함으로써 공여국들의 원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에서 이 책이 높이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권의 책은 보다 최근에 출간된 책들로서 최근 혁신적이고 다양화 되고 있는 원조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원조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글렌 하버드와 윌리엄 더건이 쓴 **‘원조의 덫 : 빈곤 퇴**

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2010)은 빈곤국의 정부기관과 NGO단체에만 원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국의 민간 산업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개도국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육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탈리는 글렌 하버드와 윌리엄 더건이 “빈곤국의 민간 산업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존 원조 활동의 ‘본건적 체제’를 분석하고 타파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 평가합니다.

마지막 책이자 하이라이트는 딘 칼런과 제이콥 아펠의 공동 저서인 **‘빈곤의 덫 건너차기(2011)’**입니다. 딘 칼런은 개발경제학 및 행동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앞에 소개된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이스탈리 간의 논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은 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과연 어떤 구조활동이 빈곤퇴치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의도에 따른 나쁜 결과를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이를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행동경제학의 정교한 장치들을 통해 기존의 원조사업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지되고 있는 무담보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을 중심으로 말이죠. 칼런



빈곤의 덫 건너차기 (2011)

이 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조에 있어서 많은 경우 원조의 수단 초점을 맞추어 진정하게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한 형태의 원조는 없으며 기존 원조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고민,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의 원조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만 빈곤의 덫을 퇴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딘은 공동저자인 제이콥이 세상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작문실력을 보고 함께 원고를 쓰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재치있는 제이콥의 글 덕분에 책은 읽는 동안 딘과 제이콥,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다양한 수혜자들이 나의 이웃같고 친구같은 기분이 들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게 되는 기분까지 좋아지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빈곤과 원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한 코이카의 추천도서 8권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 문헌

- 글렌 하버드 · 윌리엄 더건. 2010. 원조의 덫. 비즈니스맵.
- 던컨 그린.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
- 딘 칼런 · 제이콥 아펠. 2011. 빈곤의 덫 건너차기. 청림출판.
- 윌리엄 이스탈리. 2011. 세계의 절반 구하기. 미지북스.
-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 장하준. 2004. 사다리 건너차기. 부키
- 제프리 삭스. 2006.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 캐럴 랭커스터. 2010.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시공사.
- 폴 콜리어. 2010. 빈곤의 경제학. 살림출판사.